

“ 원수의 행악에 대응하는 자세 ”

■ 이종윤 원로목사

시편에 실려 있는 몇 편의 저주 시 중 그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시편 109편은 성경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시 중 하나이다. 원수에 대한 저주의 잔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배치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수로 하여금 단명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어 힘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있다.(8-10)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눅 6:27-28)

구약에서 경건은 의분과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저주의 시를 쓴 다윗의 원수는 사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원수라는 해석이 있다. 전술한 시인의 간청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선언이라 한다. 따라서 저주는 개인감정이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윗은 설욕과 판단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다.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자비로,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아니하리니'(삼상 24:10)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롬 12:19)라는 말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만 달란트 빚진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일에 실패자가 되면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들에게 형벌이 있다. 악행한 자는 상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가증되고 감상적인 세대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악한 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시대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지만 본사에서 기술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한 악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실 때 그들은 최후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신중하게 다루시고 계시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강권하시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시는 일깨워 주고 있다. 원수들의 행악은 시인으로서의 감내기가 어려웠다. 근거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조작하여 유포하므로 중상 모략하는가 하면, 이유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미워하여 헐뜯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었다. 이런 행악자에 대하여 성도는 미워하기 쉽고 저주하기 쉬우려만, 시인은 '기도할뿐이다'(4)라 한다. 원수는 험담이나 중상키 위한 유언비어로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말할 뿐이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7) 하나님의 섭리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대적자의 대적자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7) 법정의 피고인 옆에는 변호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인이 있을 뿐아니라 사탄이 서서 그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오히려 대적한다. 악인은 '아버지로부터 삼사대까지 죄를 갚겠다'(출 20:5-6, 눅 19:41) 그러므로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자, 회개치 않는 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명성에 상처를 주고 공격한 원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더 큰 관심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악인은 그들의 입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방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악인의 오른쪽엔 사탄이 서 있으나 궁핍한 자의 오른쪽엔 하나님이 계시어 보호, 구원해 주시고,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원수의 저주를 증가할 주의 은복을 믿고 원수의 도전을 받는 것보다 성도답게 나는 대응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자.

-한국장로신문 2020년 10월 28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세 번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반갑게 뵙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2023년도 청지기 수련회는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승리교회 진회근 원로목사님을 모시고 청지기의 영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성숙하고 깊은 영성을 구비한 청지기로 세움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3부 예배를 3세대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3011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중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경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이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경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 요일 4:7-13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사랑은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참 사랑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고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사랑의 실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 하나님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며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태도의 근본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기 겸손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히 2:18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의 죄인이라는 겸손한 발걸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이해하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죄인의 대명사처럼 살지만 얼마든지 변화되어 새롭게 될 사람들로 보셨기 때문에 극진히 사랑하시고 ‘내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자아인식과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겸손은 자기 낮춤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출발합니다.

2. 하나님 사랑은 실천되는 사랑입니다.

본문 9,10절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결정적 순간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요 둘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론과 명상 속에 환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또 역사 안에서 실천된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수사건은 그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역사 그 자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실천 현상이 있는 현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가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역사이며 실천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 실천 현상이 없는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적 위선이라고 헐리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 사랑을 실천하셨으니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실천 현장’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요 기독교 전통입니다.

3.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어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각자 삶의 형편이 있고 책임져야 할 미래가 있고 또 이기심이라는 원죄에 가까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버려두면 언제나 이기적 본능의 욕구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전12장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전 13:1이하에서 장대한 사랑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즉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인간의 본능적 탐욕을 극복하는 사랑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 5:22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거하면서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친화적 삶을 유지합시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도	시 간	인 도	기도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노제현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노제현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김광태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시 99:5, 9...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찬 송	14(1, 4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다 함 께
* 성서 교육	32(시 71)... 다 함 께
* 송 영	4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309... 다 함 께
성경 봉독	요일 4:7-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봉헌	다 함 께
* 봉헌송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손달익 목사
* 찬 송	56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7-8)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청지기 수련회(영성훈련)

시 간	인 도	기도	시 간	인 도	기도
오후 4시30분	김익환 목사	박명철 집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4:9 인 도 자
찬 송	21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521 다 함 께
성 경 ... 엡 2:1-10, 계 4:1-11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구원받은 자의 욕심” ...	진희근 목사
* 찬 송	31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2,238명	575명	2,813명	612명	2,037명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도	시 간	인 도	기도
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박미정 권사			
II 오후 7시	장석남 목사	임명숙 권사			

성 경	왕상 15:9-2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손달익 목사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모임

1. 한나전도회 월례회 / 15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2. 에스더전도회 월례회 / 18일(주) 수요 1부 예배 후 802호

알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506호
비전2030 도고팀 : 주일 오후 1시-3시
6.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7.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8.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606호
신혼가정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2시
10.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11.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3.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4. 청지기 수련회 강사 : 진희근 목사
승리교회 원로목사, 서울서북노회 전노회장,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이사장 역임
15.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첫 번째 세례식인 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2월 2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1월 28일(토)
- 세례교육: 4주 교육(1/29, 2/5, 2/12, 2/19일) 낮 12시 20분 609호
- 세례문답: 2월 19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2월 11일(토)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2월 19(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결혼

1. Wesley 군과 백인실 양(8교구 백승갑 집사, 박길자 권사의 차녀) / 1월21일(토) 오후 3시 30분 507 Thompson Station Road, Deerfield, Newark, DE, 19711
1. 故 하진립 성도(4교구 하태현 안수집사의 부친, 안선희 권사의 시부) / 1월13일(금) 별세, 1월16일(월) 발인